

#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전면 조정

▶ 문체부, 올 콘텐츠사업 주요 정책 발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파생된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오는 31일 폐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는 문체부 등 기존 소속으로 복귀하는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와 관련된 사업이 전면 조정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벤처단지 육성, 콘텐츠코리아랩본부서 추진 인재양성 거점 업무는 콘텐츠진흥원교육본부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2017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을 통해 이 같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사업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콘텐츠산업 지원정책 개편 방안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미 예고한대로 문체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오는 31일로 없어진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된 문화창조융합 관련 정책업무는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에서 맡게 된다.



과거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맡았던 기업 육성 거점 관련 업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의 콘텐츠코리아랩본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역시 함께 없어지는 문화창조아카데미의 인재양성 거점 업무는 콘텐츠진흥원 교육사업본부에서 맡게 된다. 이곳에서 일하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의 인력들도 원래 소속으로 복귀된다.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없어지는 데 따른 신기술 기반 콘텐츠 창작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창업 지원에 대한 정책방안은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 마련돼있던 소극장 스테이지의 경우 연간 80% 이상 가동하면서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주로 무료 대관을 통해 연극, 뮤지컬, 케이팝(K-Pop) 콘서트 등 한류콘텐츠 및 융·복합 창작공연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내년부터는 새로 마련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안에 따라 용도변경의 길을 걷게 될 예정이다. /뉴스

## 내달부터 회원 창작활동 본격화

정영신 전북소설가협회장, 새 사업계획 발표

최근 임기 2년의 전북소설가협회 회장으로 뽑힌 정영신 작가가 소설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한 새 사업계획을 내놨다. 신임 정 회장은 지난 18일에 열렸던 영화 소록도와 광화문의 천성재 작가 겸 감독과 함께하는 '소설의 영화화 방안' 세미나 및 '제1회 사랑 그리고 소설 낭독의 밤' 첫 문화행사를 무난히 치러냈다. 오는 4월부터는 회원 간의 단합과 창작활동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한다. 먼저 '꽃과 함께하는 문화기행' 및 '찾아가는 전북소설문학상 시상식'과 '가족 그리고 소설 낭독의 밤'을 열어 소설의 문학적 영감을 찾아 나선다. 또한 전북의 명인과 함께하는 '전주지역 역사문화관광콘텐츠화 방안' 세미나 및 '바다 그리고 소설 낭독의 밤'을 진행하여 도내의 비경 및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소설의 배경으로 형상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설의 영상음악 스토리텔링화 방안' 세미나를 열어 소설과 음악의 조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오는 10월에는 '제1회 청년·외국인 근로자 장편 소설문학상'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인터넷과 각종 SNS의 영향으로 소설을 찾는 독자층이 점점 희미해지고 전북소설가협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회원들이 창작활동에 활력소가 되는 자리를 마련, 이를 통해 소설가들이 좋은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일조함과 동시에 독자로부터 사랑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해은 기자



내달 18일까지 부채문화관서 '봄바람을 일으키다'

(사)문화연구창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항미)이 '봄바람 부채'와 '명화 속 부채 이야기 6, 부채를 들고 있는 여인'전을 갖는다. 봄바람 부채는 전주부채문화관 소장품 전시로 고 남천 송수남, 김삼철, 진창운, 이희춘, 류명기, 이봉금, 장문갑, 김승방, 문재성, 심성희 작가의 선면 부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봄을 맞아 봄에 어울리는 부채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내달 18일까지 부채문화관 지선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관 마당에서 진행되는 '명화 속 부채 이야기'는 한옥마을을 찾는 전주 시민과 관광객에게 부채와 관련된 명화

속 이야기를 소개하는 야외 전시이다. 이는 부채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그림이나 문학작품의 소재로도 널리 활용된 것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명화 속 부채이야기'는 그동안 에드워드 마네와 그의 연인 베르트 모리조, 김홍도, 기산 김준근, 일본관화 우키요에 작품에 부채가 등장하는 명화를 소개해 왔다. 이번 전시에선 '부채를 들고 있는 여인'라는 제목으로 피카소, 르노와르, 샤갈, 고갱, 모딜리아니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들의 작품 속에 부채를 들고 있는 여인들의 작품 총36점을 펼쳐 보인다. /정해은 기자

## ▶ 공연 & 전시 ◀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동화 '소리꾼과 피노키오'

국립민속국악원의 토요일초대석은 국악원이 새롭게 제작한 판소리동화 '소리꾼과 피노키오'를 내달 1일 11시와 3시 2회에 걸쳐 예음원에서 초연한다. 이날 무대는 3~10세 유아들이 판소리를 가까이 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국악원이 지난해부터 제작에 돌입하여 마련된 자리다. '소리꾼과 피노키오'는 세계명작동화 '피노키오'를 각색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존 판소리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유아 눈높이에 맞춘 놀이적 요소와 유아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극 활용하며 두 명의 소리꾼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낸다. 국악원 관계자는 '판소리동화'는 이미 알고 있는 전래동화 및 세계명작동화를 판소리 형식에 맞게 줄거리와 작창을 만들어 유아들이 국악에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판소리를 쉽게 이해하며 더불어 상상력도 자극시켜 유아 감각발달에 도움을 주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연장은 100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유아들의 관람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운영된다. /정해은 기자

## '새봄, 예쁜 우리 꽃을 나눠요'

전주역사박물관,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새로운 봄을 맞아 '식목일 들꽃 나누기' 행사를 마련한다.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을 찾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백양화, 비비추, 돌단풍, 송엽국 등 우리나라 산과 들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들꽃 모종을 하루 200가씩씩 선착순 나누어 준다.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1번째 진행

되는 '식목일 들꽃 나누기' 행사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꾸준히 명성을 얻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작은 꽃을 가꾸는 마음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박물관을 아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박물관 직원들의 마음이 담겼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세계는 무주 태권도인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n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 무주군

후원: 한국관광공사, KTF, KPNP, KWA, KFA, 전북은행, Kwangju Bank, JB Woori Capital, ASIANA AIRLINES